

이용제의 버블-우주, 별, 이미지의 공간 속 자아를 묻는 여행

미술평론가 유현주

작가 이용제의 근작은 우주에 관한 것이다. 외계인 혹은 UFO에 대한 호기심이 다른 어떤 때보다 강렬한 유년시절, 밤하늘의 찬연히 빛나는 별은 이용제가 우주에 관해 깊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였던 것 같다. 그동안 이용제의 아름다운 마법구슬 같은 버블은 특정한 기억의 순간을 불러내는 여행이었다면, 그가 새롭게 선보이는 우주의 버블은 작가가 읽은 텍스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전유한 이미지의 공간과 같은 것이다. 주로 그것은 그리스 신화와 공상과학 영화에서 인용되거나 연장된 일종의 판타지에 가까운 이미지들의 혼종이다. 매체를 통해 한번쯤은 보았을법한 익숙한 장면들이 이용제의 버블 속에서 재현될 때, 우리는 그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우주와 별 그리고 그것들의 이미지들이 결국 자기 자신의 존재를 묻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우주에 대한 관심은 오래 전부터 태초의 우주 생성에 관한 인류의 상상계를 작동시켜왔다. 일찍이 그리스인들은 별과 행성이 태어나기 전, 소용돌이치는 우주는 모든 것이 증기 속에 가두어진 텅 빈 공간, 심연의 상태, 즉 카오스였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스인들은, 입 벌린 어둠으로부터 어둠의 신인 에레보스와 밤의 신인 녹스가 먼저 출현하고 그들이 곧 낮의 신과 대기의 신을 출산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출현과 그녀가 낳은 신들이 결국 코스모스로서의 이 세계를 창조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진화해 가는 우주를 이미지화했던 그리스인들 특유의 사유방식이었던 것이다. 이는 신화를 통해 우주를 이해함으로써 인간 자신의 존재와 그 환경을 포용하려고 했던 그리스인들의 철학이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이용제의 버블 역시 인간에게 여전히 불가해한 우주를 이와 같은 신화의 이야기들을 재현함으로써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용제가 재현하고자 하는 우주이야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 하나는 <클래식>이란 제목의 신화적 우주 시리즈이며, 다른 하나는 영화 ‘스타워즈’의 에피소드를 담은 <스타워즈> 혹은 <판타지>와 같은 여러 텍스트에서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공상과학적 우주 시리즈로 등장한다. <클래식>은 신들의 사랑과 전쟁을 통해 이 우주의 코스모스적 질서를 만들고 또한 생명을 탄생시킴으로써 여전히 인간 세계에 작용하는 것 같은 신의 손길이나 호흡을 느끼게 해준다면, 영화의 에피소드에서 가져온 <스타워즈>는 보이지 않는 우주의 행성 어딘가에 또 다른 생명체가 존재할 것만 같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느낌을 전달한다. 영화에서 스타워즈의 행성들은 우주 내부에 공존하는 국가들 같은 개념이며, 서로 공존하기 위해 연합하거나 전쟁을 치르는 생명체가 있는 별들이다. 작가가 굳이 스타워즈를 버블 내부로 가져온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작가는 어릴 적 그가 우러르던 하늘의 별자리 중 어딘가 스타워즈의 행성들과 같은 별들이 있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는 것일지 모른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있었던 빅뱅이후로 계속 팽창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우주에 인간과 같은 혹은 더 뛰어날 수도 있는 지적 존재가 다른 행성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비단 한 예술가의 상상 속에게만 일어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의 철학자와 과학자들에게도 주요한 관심이 된지 오래다. 종교적인 관심이든, 과학적인

관심이든, 생명체와 우주에 관해 묻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 존재를 해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신화와 우주론,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길을 만들어준다. 때문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행위나 암투를 통해 우리는 인간존재의 근원적 욕망이 문학적으로 서술되는 것을 보게 된다. 예컨대 대지의 여신 가이아의 남편인 우라노스가 아들로부터 거세당한 후 어머니 가이아의 몸인 땅과 분리되어 하늘이 되었고, 그때부터 하늘은 일종의 관념이 되어 저 높은 곳에 있는 통치자로서의 하늘, 신, 아버지의 이름이 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야기에서 아버지-신을 하늘로 은유하는 다른 종교들과의 유사성을 발견하게 된다. 하늘과 땅, 우주를 재현하는 신화에는 이처럼 인간 내면의 사랑과 질투, 욕망과 더불어 인간과 신의 관계를 인간의 관점에서 설정하는 매우 인간주의적 모티프들이 등장한다. 때문에 우주라는 관념에 접근하는 이용제의 버블에서 우리는 우주의 탄생 뿐 아니라 인간 자체에 대한 인문학적 물음들이 내재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제가 좀 더 밀어붙여야 할 과제가 남는다.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신화나 공상과학 영화로부터 빌려오는 과정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구체적인 우주에 대한 이미지를 더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 단순히 이야기를 재현하는 차원이 아닌, 과학도와 같은 심층적인 고민을 반영한 이용제 자신만의 우주에 대한 관점을 부각시키는 이미지라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이기 때문이다.

우주는 여전히 미지의 베일에 싸인 신비로운 공간이다. 엔트로피의 극단에 다가가고 있는 현재 위기에 처한 지구, 이런 지구의 종말을 예측하고 과학적 탐사를 하는 사람들은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찾아 우주여행을 하고자 한다. 작가의 관심은 자아를 둘러싼 세계와 우주에 대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앞으로 우주는 인류에게 더욱 실존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아니, 작가는 이미 실존적 문제에 다가가고 있는지 모른다. 영겁의 생을 전개시키는 이 광활한 우주의 스페이스에 어찌면 존재할지도 모를, 다른 별의 생명체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제가 그린 우주 이미지의 재현은 바로 자신의 삶을 둘러싼 세계 즉 우주를 어떤 면에서 존재론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작가 자신의 시선이 담겨 있다. 그러한 우주 이미지 공간을 유영하는, 자신이 창조한 우주선 같은 버블 속에서 말이다.